

2010년 국내경제 전망(2)

글 : LGERI

2010년 우리경제는 수요회복과 기저효과에 힘입어 상반기에는 5.8%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저효과가 줄어드는 2010년 하반기 성장률은 3%대에 머물 것으로 보여 2010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4.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에는 수출과 내수의 빠른 회복세가 완회되면서 경제성장의 속도가 전반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이 잔존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회복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중국의 고성장이 우리 수출에 크게 기여하겠지만 원화강세가 지속되면서 수출의 상승세는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교육조건 개선에 따른 소득중대가 소비확대에 기여하고 설비투자도 2009년 크게 위축되었던 데 따른 반등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부문이 민간수요를 촉진하는 효과가 줄면서 내수회복의 힘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근로 축소로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화 환율은 2010년 평균 달러당 1,100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후반에 머물 전망이다. 2010년 4%대 중 후반의 성장을 달성하더라도 GDP 수준이 잠재GDP 수준을 밑돌아 경기 과열 우려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금융위기 때의 긴급 조치들을 거둬들이며 급격한 금리인상 등의 출구전략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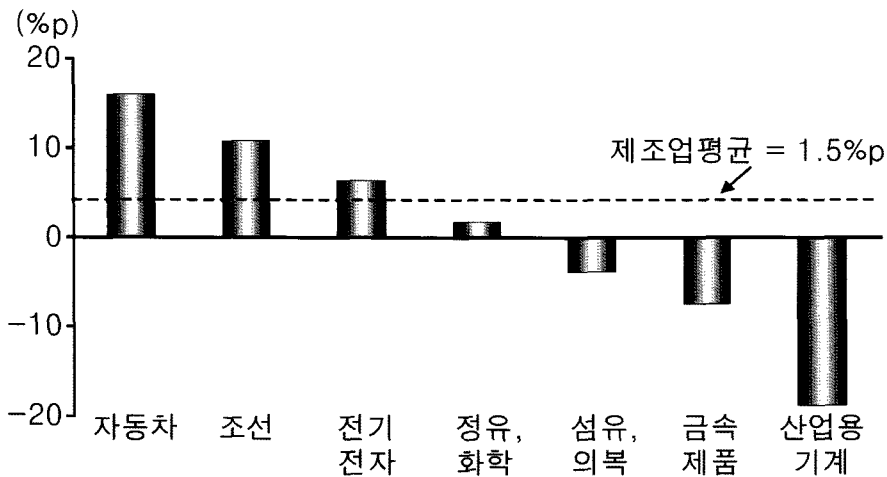
● 2. 국내경제 전망

설비투자의 높은 성장은 기저효과에 따른 것

2009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23.5%나 급감하였던 설비투자는 3분기 -8.7%로 감소 추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최근 3개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78.4%로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산업생산도 늘면서 제조업의 설비투자 조정압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그림 6) 참조). 기업들의 설비투자 여력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재무구조 조정으로 부채비율이 크게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2009년 세계경제의 위기상황에서도 기업들의 수익성은 크게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전체 설비투자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IT 산업 부문은 경영실적이 크게 호전된 상황이다.

〈그림 6〉 산업별 설비투자조정압력('09.3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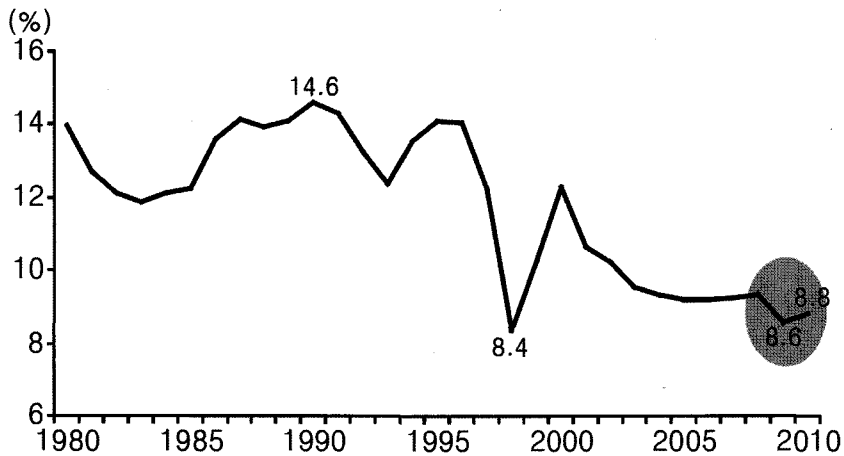
주 : 설비투자 조정압력 = 산업생산 증가율 - 생산능력 증가율, 전년동기비 기준
자료 : 통계청

다만 설비투자가 2009년 축소된 것 이상으로 증가하는 V자형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평균적인 성장 능력은 1%p 이상 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과잉설비 문제도 아직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 중에도 아직 해소되지 못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교란요인들이 간헐적으로 대두되면서 기업들의 투자전망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2010년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은 10% 가까운 수준에 이를 전망이지만 이는 2009년 줄어들었던 부분을 만회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GDP에서 설비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에도 9% 이하로 설비투자가 부진했다고 평가되는 2000년대 평균(9.6%)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그림 7) 참조).

산업별 설비투자의 차별화 현상도 심화될 것이다. 한계기업의 탈락 등으로 구조 조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전자부품 등 부문에서는 국내기업들이 비교적 높은 투자 증가를 계획하고 있다. 산업은행의

설비투자 계획 조사에 따르면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부문에서 LCD 차세대라인, 반도체라인 증설이 계획되어 있는 등 전기전자산업의 설비투자는 2009년 대비 17.8%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동차 산업도 신차라인 증설 및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설비투자를 크게 늘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계적으로 공급능력의 과잉현상이 해소되지 않은 선박이나 금속 등의 경우 설비투자의 위축이 2010년 중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림 7〉 GDP대비 설비투자 비중 추이



주 : 명목 기준 GDP 대비 설비투자 비중임. 2010년은 LG경제연구원 전망치 기준
 자료 : 한국은행

토목건설 둔화, 주택건설은 소폭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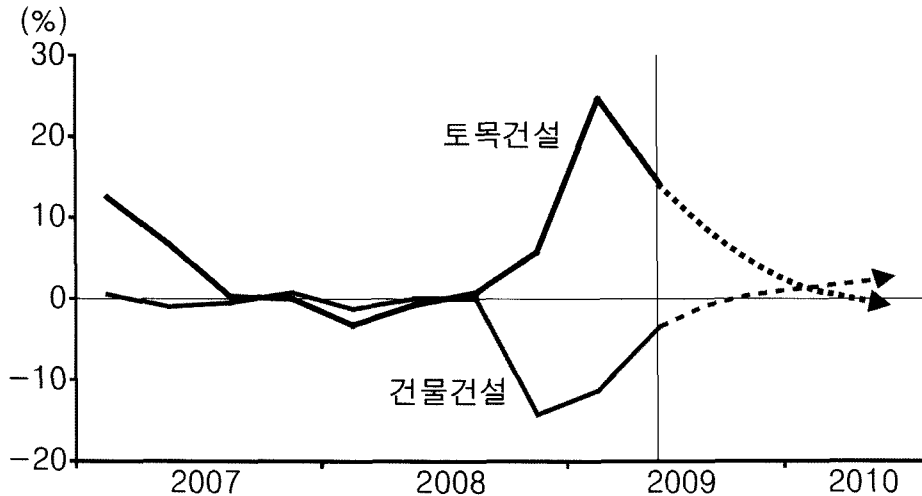
민간 주택건설이 장기침체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지출 확대로 토목건설이 건설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2010년에는 토목건설의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고 주택건설이 소폭 회복되면서 전반적인 건설투자 증가율은 2%대에 낮은 수치를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8〉 참조).

주택건설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부문 주택공급 등에 힘입어 2010년에는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재개발,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로 3분기 건축건설 수주가 전년동기 대비 7.4% 증가한 바 있다. 2008년 기준 서울시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만 15만호를 넘는 것



으로 알려져 있어 이러한 수주회복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8〉 건물건설 및 토목건설투자 추이



주 : 전년동기비 기준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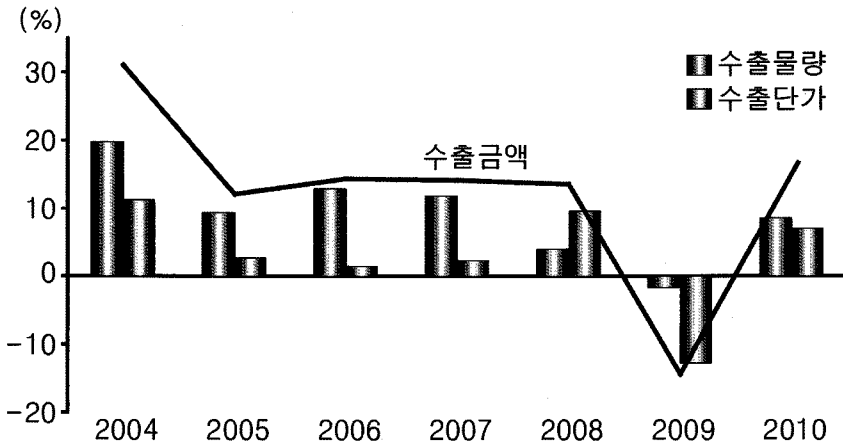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부문의 주택공급 역시 주택건설의 상승요인이다. 최근 발표된 1,2차 보금자리주택지구에는 2013년 까지 약 10만호가 공급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주택건설의 회복은 상당부분 건설경기 진작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의한 것으로 아직까지 국내 주택건설경기의 장기침체를 가져왔던 수급불균형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미분양 주택이 정부의 대책 등으로 최근 빠르게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12만호 이상 남아 있어 민간 주택건설의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토목건설은 2010년 중에도 정부의 대형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활기를 띠 전망이지만 2009년에 비해서는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둔화될 것이다. 재정지출 확대에 힘입어 토목건설수주는 2009년 3분기까지 전년대비 67.9% 증가하였으며, 4대강 살리기, 녹색교통망 구축, 30대 선도 프로젝트 등 대형투자사업이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예산 측면에서 보면 2010년 토목건설이 2009년에 비해 크게 늘기 어려운 상황이다. SOC예산은 2009년 중 전년대비 30% 가량 늘었지만 2010년에는 오히려 1.6%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토목건설은 공공부문이 대부분 차지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부예산제약으로 크게 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기업의 SOC 투자 역시 2010년 예산 중 일부를 2009년 하반기에 조기집행한 바 있어 2010년 예산이 크게 늘어나기 어렵다. 이러한 예산 제약에 비추어 볼 때 계획대로 토목건설투자가 집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화강세로 세계시장 점유율 둔화 예상

지난해 말 급격히 축소되었던 수출은 2009년 들어 빠른 반등 추세를 보이면서 2009년 11월 현재 전년 대비 플러스 증가세를 회복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11월에 수출이 급락했던 데 따른 것으로 아직 우리 수출이 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계절적인 요인을 감안한 11월의 수출액 규모는 약 320억달러 규모로 2008년의 월평균 수출액인 350억달러에 미치지 못한다. 원화환율 급등에 따른 이점에도 불구하고 세계경기의 침체폭이 아직은 크기 때문이다.

〈그림 9〉 우리나라 수출증가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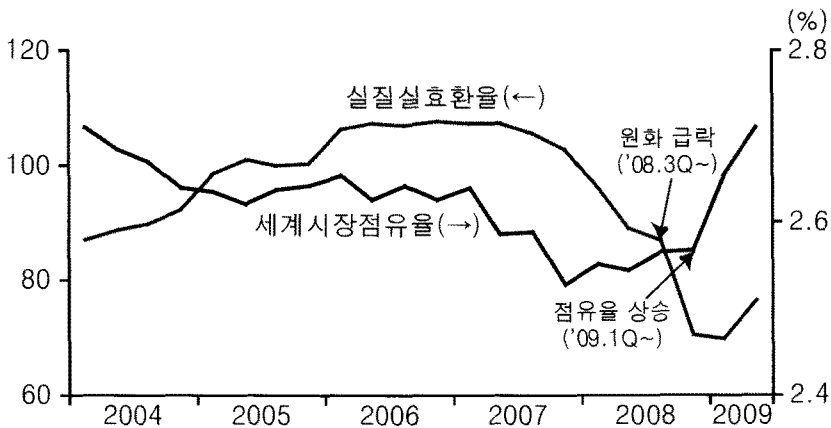
주 : 전년동기대비 기준. 2009년, 2010년은 LG경제연구원 전망치임.
 자료 : 한국은행, KITA

2010년 세계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하면서 우리 수출의 회복세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0년 중 9% 내외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중국의 경기진작책으로 내수용 전자제품 및 부품,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쓰이는 중간재 등에 대한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의 수출이 회복되면서 수출상품 제조에 쓰이는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대중 수출 또한 회복될 전망이다.

수출단가의 회복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서 이에 연동되어 있는 석유화학, 정제 제품군 등의 단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또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부문도 2009년 한계 기업들의 생산조정 등으로 공급능력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어서 수출가격의 강세가 2010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원화는 절상기조를 지속하면서 수출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2004년 이후에는 원화 가치 변화와 우리 수출의 세계시장 점유율 간 역(逆)의 상관관계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그림 10〉 참조).

주요국 통화에 대한 원화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내는 실질실효환율은 2007년 이후 줄곧 하락세를 나타내었는데 같은 기간 우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시차를 두고 상승세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최근들어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 원화 가치가 더욱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2009년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1,120원으로 2009년 비해 10% 이상 절상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계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도 약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0〉 우리나라의 실질실효환율과 세계시장 점유율



주 : 세계시장점유율=(한국 수출금액/전세계 수입금액)×100
 2009년은 5월까지 수치임.
 자료 : BIS, KITA

산업별로 보면 반도체와 LCD, 휴대폰 등 주력 IT제품군의 수요회복과 함께 해외 경쟁업체 대비 우월한 공급 능력과 신제품 출시 능력으로 2010년에도 우리 수출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중국의 수요확대와 미국 등 선진국의 대기수요 등으로 글로벌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2010년 중 초과공급이 예상되는 석유화학의 경우 수요회복보다 중동 물량 진입 등 세계적 공급 확대가 더욱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선박의 경우도 최근 글로벌 선사들의 재정 악화로 선박의 인도가 연기되거나 취소되면서 수출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경상수지의 흑자기조는 2010년 중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흑자규모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내수회복과 원화강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2010년 중 수입증가율은 20%를 넘어설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침체와 고환율로 크게 줄어들었던 해외여행도 점차 재개되면서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2009년 4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010년에 200억달러 이내로 줄어들 것이다.

▶ 다음호에 계속